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7월 5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64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와 남편과 자녀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허정자 -

제가 은혜와진리교회에 출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지 어느덧 32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말씀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 온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때가 잊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신령한 지식이 쌓이고 믿음이 크고 깊어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늘 한결같이 성령적이고 복음적인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의 영력넘치는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께 축복기도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총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 월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한결같이 온 힘을 다하시는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저의 작은 믿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근래에 1년 동안 제가 주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간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사도행전 16:31)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온유하고 인자한 성품을

가졌지만 신앙생활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남편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참 많이 애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안수집사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형부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으며 병원에 갔다가 3일 만에 소천하는 황망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엔 제 남편이 예배와 함께 봉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권면하던 형부였기에 저의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형부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남편의 얼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를 마친 후, 드디어 남편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의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신 구역과 교구의 제직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장차 받을 생명의 면류관만을 바라보며 헌신 봉사하는 남편이 되도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자식은 여호와와 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신생아 때부터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던 자녀가 이제 장성하여 우리 부부에게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당회장 조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서 고집하여 대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어릴 때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때 성경을 읽게 하려고 방학때 영어성경 쓰기를 시켰는데, 그 후 자라면서 외국에서 지내지 않았는데도 영어로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GNTC 뮤지컬 배우로 즐겁게 헌신하고, 또 지금 다른 청년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청년봉사선교회의 임원으로 봉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하는 생각으로 늘 교회중심 예배중심 기도중심의 생활을 하는 자녀를 보며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예언을 떨치치 말고”(데살로니가전서 5:20)

작년 7월부터 저는 디스크 협착과 디스크 수액 탈출증으로 고생하였습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어서 통증과 저림 증상이 발가락까지

내려와 앉지 못하고 누워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신경을 마취시켜서 통증을 완화해 주는 주사와 진통제로 견디며 생활하였는데, 그 생활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당회장 조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연속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자주 듣고 또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 그때 새롭게 저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와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이 예언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전력하여 신유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였으니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치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부당회장 목사님께서 신유의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한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비록 앉아 있지는 못하지만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교회생활에도 더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견디라면 견디겠는데, 몸이 건강하여 주님의 일을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서 신경주사를 더 맞을까 생각하다가 수술과 시술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병원에 다녀온 후 그 다음주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토록 극심하던 통증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3일 동안 더 경과를 보고는, 계속 통증이 없기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남편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저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남편이 제가 그토록 소망하던 섬김과 봉사의 생활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 저의 자녀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며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저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순식간에 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저의 가정이 반석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 온 가족이 항상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경기도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기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경기도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 산본: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경기도 시흥시 서촌상기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경기도 의왕시 내소로 70-9 (내소동) T.031-422-9200
- 전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031-763-3720
- 남양: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전북 정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은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구역공과 제4권 (1단원 : 예수님의 비유)

(제5과) 돌아온 탕자의 비유

- **본문** : 누가복음 15:11-24
- **요절** :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눅 15:22,23)
- **찬송** : 315장(새찬송가 525장), 336장(새찬송가 278장)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들이 하나같이 큰 감동을 안겨 주지만, 그 중에서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더 한층 우리의 심금을 울려 줍니다. 그 까닭인즉, 우리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가진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털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흉년이 들자 그는 끼니마저 걱정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빈 들에서 돼지치는 사람이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로 연명해야 했지만,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둘째 아들은 넉넉한 양식과 온정이 넘치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기만 해도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고 아들의 귀환을 기뻐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처지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1.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죄인으로서 저주 아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까닭은,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제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를 떠난 그가 얻은 것은 낭패와 실망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재물이 있을 동안에는 많은 친구가 모여들었으나, 무일푼 신세가 되자 아무도 그를 아는 척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없는 자유를 추구했으나 결국 종의 신세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둘째 아들의 모습은 첫 사람 아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으나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었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된 인생들 역시 죄인으로서 그와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한평생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되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날 방탕했던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면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누릴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모든 인생은 본질상 죄인으로 저주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품에 안기기까지는 결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2.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난 뒤, 아버지는 자식 걱정에서 눈을 뜨고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들이 거주하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아마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매일같이 동네 어귀에 나가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은

곧 하나님의 심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헤매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밤중에도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인생들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4) 하신 말씀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보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요?”라고 반문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편협하고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영의 아버지로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손뼉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먼저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불신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3.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쥐엄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자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릇된 행실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즉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먼 여행 끝에 고향집에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먼발치에서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한걸음에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그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고 하는 아들의 손을 이끌어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은 그가 아들의 모든 잘못을 이미 용서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시며(눅 15:7),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시 103:12),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히 10:17) 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갱게 씻겨 주십니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 환대하였듯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요 1:12),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읽는 사람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알게 해 줍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하여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힘써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